

예수님의 십자가 수난과 죽음

가롯 유다의 자살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여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27:1-2)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미리 심문한 것은 로마의 법정에 예수님을 세우기 전에 혐의를 만들어 씌우기 위함이었습니니다. 예수님에 대해 저들이 붙인 죄목은 불경죄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을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이 “내가 너로 살아 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고 하였을 때 예수님은 “네가 말하였느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저가 참람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람한 말을 들었도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는 로마정부가 유대인들로부터 사형집행권을 빼앗아 가버렸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라도 사형에 처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사형시키려고 모든 수단을 다 강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경죄목으로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세울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가 그것은 너희들의 종교문제이니 너희들 스스로 해결하라고 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법정에서 통할 죄목을 조작해 내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정부에 대한 반란죄였습니다. 예수님이 세금을 내지 말라고 선동했다는 것과 스스로를 왕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조작된 것으로서 증거도 낼 수 없는 죄목이었습니다. 경험 많은 재판관이었던 빌라도는 이것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심문한 뒤 그런 죄목에 대하여 아무 혐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삼십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죄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27: 3-5)

어떤 사람들은 유다와 관련된 그럴듯한 이론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즉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팔으므로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분의 나라를 빨리 건설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왕 되심을 선포하도록 상황을 몰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계획이 자신이 의도했던 방향대로 전개되지 않자 자신의 한 일을 뉘우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증거가 없는 하나의 흥미로운 추측에 불과합니다.

회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도소 죄수들은 대부분 저지른 일에 대해서가 아니고 그들이 붙잡혔다는 사실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여깁니다. 즉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한 뉘우침과 그 일이 자기의 의도한 바와 반대되는

결과를 낸 데 대해 뉘우치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유다의 뉘우침은 이 둘 중에 어떤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베드로의 경우와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엄청난 죄를 지은 것을 깨닫자 뉘우치고 밖으로 나가 심히 울었지만 유다는 목 매어 자살하였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에 대하여 증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유다는 “내가 무죄한 자의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고 말하였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심문한 후에 “내가 보나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고 하였으며 후에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운명 후에 로마의 백부장은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무죄를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죄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뉘우침에 대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고 일축해 버렸습니다. 이에 유다는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가서 목매어 죽었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에 따르면 “이 사람이 불의의 샅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유다는 비참한 결말을 맞았습니다.

“대제사장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피 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둬서 옳지 않다 하고”(27:6)

이들이 이같이 율법의 작은 규정에는 충실하려고 했다는 것은 참으로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재판한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그들의 율법에 따르면 사람이 체포된 그 날로 재판받게 하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그 즉시로 끌고가 재판하였습니다. 또한 62절부터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비일 다음날, 즉 안식일에 빌라도에게로 가서 “저 유혹하는 자가 살았을 때에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업무상의 방문이요, 저들은 예수님을 고소한 가장 큰 죄목 중의 하나인 안식일을 범한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율법을 자의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까? 저들은 필요할 때마다 율법을 아랑곳 않고 여기면서도 겉으로는 작은 세부사항에까지 율법을 따르는 흉내를 내고 있었습니다.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저희가 그 정가된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정가한 자의 가격 곧 은 삼십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27:7-10)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이 예언을 한 선지자는 예레미야가 아니고 스가랴입니다. 마태가 구약을 인용함에 있어서 실수를 범했는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성경을 옮겨 쓰던 중에 스가랴 대신에 예레미야를 써넣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예언이 스가랴서 11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며 총독이 물어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 하시는지라”(27:11-12)

예수님은 이후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고소하여 떠들어대는 죄목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일체 그 입을 여시지 않았습시다.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 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심히 기이히 여기더라”(27: 13-14)

빌라도는 명백한 거짓 고소를 당하면서도 아무런 자기 변호를 하지 않는 이 사람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시다.

당시에는 명절에 로마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습시다. 이는 로마정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호의를 과시하기 위한 관례였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로 하여금 로마정부에 호감을 갖도록 하려는 것이었습시다. 대체로 명절에 석방되는 죄수들은 정치범이었는데 백성들이 선택할 수 있었고 보통 대중의 인기를 얻고 있던 용감한 정치범이 선택되었습시다. 당시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었는데 그는 반란과 살인죄로 복역중이었습시다. ‘바라바’는 참으로 흥미로운 이름인데, 그 뜻은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아바’(abba)는 ‘아버지’를 뜻하고, ‘바’(bar)는 히브리어로 ‘누구 누구의 아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바야곱’하면 야곱의 아들을 뜻하며 ‘바디매오’는 디매오의 아들을 뜻합니다. 시리아 페쉬타 사본에 따르면 바라바의 이름은 ‘예수 바라바’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바라바를 놓아주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놓아주랴?”고 이 둘을 분명히 구분해서 불렀던 것입니다. 예수의 히브리 이름은 ‘야슈아’인데 이는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시다. 그래서 그 때 당시 그리스도 예수를 분명히 다른 예수라는 사람들과 구분하기 위하여 ‘나사렛 예수’, 또는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 등의 호칭이 쓰여졌습시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아라”(27:17-18)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시기했습니다. 이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시기했을 뿐만 아니라 두려워했는데, 왜냐하면 만일 큰 무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다가는 그들의 권위가 위태로워질 것이었기 때문이었습시다. 이것을 안 빌라도는 백성들이 예수님의 석방을 요구할 줄로 생각하였습시다.

“총독이 재판 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27:19)

정경이 아닌 책들에 의하면 빌라도의 아내의 이름은 클라우디아 포르쿨라(Claudia Porcula)라고 하며 팔라투스(Palatus)라는 작은 아들이 있었다고 전합니다. 이 아들은 예수님에 의해 병고침을 받았고, 따라서 클라우디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된 전체의 이야기에 하나의 부가적인 드라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아내는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라고 빌라도에게 간청했는데, 그녀는 예수님을 ‘저 옳은 사람’이라고 말하였습시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예수님의 무죄함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들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로소이다”(27:20-21)

이에 빌라도는 백성들에게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라?”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재미있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빌라도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제기되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빌라도가 이 질문에 대해 결정을 내린 것처럼 우리 각자도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개인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 결정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중간적인 태도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나를 위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믿든지 믿지 않든지, 영접하든지 거부하든지, 고백하든지 부인하든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습니다. 이는 창세전부터 정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사실은 이와 같이 우리 모두가 예수님에 대한 태도를 결정해야 하지만 그 결정이 예수님의 운명에 하등의 영향도 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바에 따라 그 실체가 바뀌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내린 그 판단과 결정이 바로 우리의 운명을 결정 짓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 재판하는 셈이 됩니다. 예수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거절하시겠습니까?

따라서 우리의 운명에 대하여 하나님께 책임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님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질지 결정해야 하고, 그 결정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 짓게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나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 혹은 예수님을 만나 본 적이 없는 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 쉽게 결론을 내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알기 원한다면, 예수님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그 모든 증거들을 철저히 조사해 보아야 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그렇게 해볼 수만 있다면 누구나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빌라도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심한 내면적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무엇이 옳은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무죄이며, 따라서 그가 의로운 재판관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군중들의 외부적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군중들은 그로 하여금 그의 양심에 반하여 결정하도록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이와 비슷한 압박을 종종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되었다고 알고 있는 결정이나 행동을 강요받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판결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라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이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27:22-23)

모든 군중 소요가 그렇듯이 여기서도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성을 잃고 소리를 질러했습니다. 이런 때는 제일 큰 소리가 먹혀들기 마련입니다. 정의나 판단력은 설 곳이 없었습니다. 빌라도는 민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피살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처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나가서 그 피살한 곳에서 사면에 있는 각 상읍의 원근을 쫓겠지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자의 피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신 21:1-9)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빌라도는 전통적 유대인의 법에 따라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고 하였습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27:25)

빌라도의 선언에 백성들은 모두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말이 무슨 말인 줄 몰랐을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인데 이로 인하여 예로부터 무시무시한 저주가 유대인들에게 끊이지 않고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면, 이 말의 대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A.D.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파괴와 함께 시작된 유대인들의 고난은 20세기 중반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의 유대인이 대학살당하기까지 너무도 끔찍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자녀들이 부모의 죄로 인하여 또는 부모가 자녀의 죄로 인하여 고난받거나 벌받지 않고 모두 자신의 죄로 인하여 고난과 벌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의 자녀들은 간접적으로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오늘날 부모들의 죄로 인해 고난받는 자녀들은 많습니다. 만일 부모가 마약 또는 알콜 중독자이거나, 어린이 학대자라면 자녀들은 부모의 죄로 인해 고통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 아이는 부모가 저지른 죄 때문에 처벌받는 일은 없으며 단지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해서 처벌받게 됩니다. 또한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이 나가서 무서운 죄를 저지르는 것을 봅니다. 그들의 마음이 상하고 고통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부모는 자식의 죄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책임 질 사람은 자신뿐입니다.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박히게 넘겨 주니라”(27:26)

십자가에 매달기 전에 채찍질하는 것은 로마에서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죄수는 알몸으로 낮은 기둥에 등을 구부린 자세로 묶입니다. 가죽채찍에는 간격을 두고 날카로운 뼈 조각과 납덩이가 박혀 있었으므로 이것으로 맞으면 살이 찢겨 묻어나옵니다. 죄수들은 채찍질당하는 중에 두세 번씩 기절합니다. 이 채찍질의 목적은 미해결

범죄를 해결하는 데 있었습니다. 죄수가 한 가지 죄를 고백할 때마다 형집행자는 채찍질의 강도를 조금씩 내립니다. 그러나 그 죄수가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형집행자는 그 채찍질의 강도를 점점 더 세게 하여 결국 혹독한 고통에 못 이겨 죄를 실토하게 만들었습니다. 죄수 옆에는 항상 서기관이 대기하고 있다가 죄수가 자백하는 내용을 받아 적었습니다. 이런 식의 고문으로 로마 정부는 그 사회에서 발생하는 많은 사건들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채찍질을 당하시면서 털썩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고백해야 할 죄가 하나도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판결은 원래 채찍질 40대였는데 그것은 40이 구약성경에서 심판의 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죄수에게는 39대의 채찍질만 가해졌습니다. 39라는 수는 자비의 수입니다. 물론 큰 자비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로마정부는 이러한 정책으로 이스라엘에 관용을 베푸는 인상을 주려 했습니다. 그래서 판결은 40대라고 해도 39대만 때렸습니다. 죄수들은 종종 채찍질로 인하여 피 흘리며 죽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살이 갈라져서 뼈가 드러나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죄수들은 끌려나가 십자가에 매달리게 됩니다. 양 손에는 못을 박지만 발에는 못보다는 끈으로 묶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못박힌 손에 파리와 벌레들이 달라붙어 죄수의 온 몸은 파리와 벌레들로 뒤덮이기 시작합니다. 십자가 처형은 실로 비인간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같은 십자가 고통을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앞에 있는 즐거움, 즉 우리의 구속으로 인해 이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27:27-30)

한 역사가는 예수께서 이러한 희롱을 당하시기 이전에 이와 유사한 일이 있었음을 기록하였습니다. 어떤 바보가 자기를 왕이라고 하자 로마군병들이 순전히 재미로 그에게 붉은 천을 둘러 씌우고 머리에는 왕관 모양을 만들어 씌우고 손에 막대기를 쥐어 주고는 그 앞에 절하며 “왕이여 평안할지어다”하며 놀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종류의 조롱을 예수님에게 행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웠습니다.

예수님의 머리를 찌르는 가시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은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가시는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 저주를 우리 대신 받으시는 예수님이 가시로 된 면류관을 머리에 쓰셨다는 사실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십자가 위에서의 고난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27:31-32)

십자가의 세로 막대는 보통 미리 땅에다 박아 두고 죄수는 가로 막대를 지고 가야 했는데 예수님을 대신해 십자가를 졌던 이 시몬은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 수 년간 돈을 모아두었다가 그 돈으로 예루살렘에 온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군사들은 차고 다니던 칼을 식민지 백성의 어깨 위에 가볍게 올려놓는 동작만으로도 이것저것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권위를 상징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무거운 짐도 억지로 지고 가게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또 누구든지 너로 오 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라”고 하신 말씀은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따르면 이 시몬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고다 즉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27:33)

골고다는 다메섹 성문 밖에 있던 언덕 지역으로 많은 동굴들 때문에 해골처럼 보였던 곳입니다. 동굴들이 많은 이유는 그 일대에서 돌을 많이 캐어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메섹 성문의 유적이 예루살렘에서 고고학자들에 의해 발견되었는데 그 위치는 현재의 다메섹 성문 아래쪽입니다. 그런데 이 발굴된 다메섹 성문은 로마 시대 것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해 가실 때 통과했던 바로 그 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27:34)

쓸개 탄 포도주는 일종의 마약으로 고통을 덜 느끼게 하는 효력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 형을 받은 죄수에게 베푸는 일종의 자비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십자가 처형이란, 십자가에 못박힌 상태에서 온 몸의 기력이 다하여 근육이 힘을 잃고 나면 관절 부분이 탈골되어 서서히 죽는, 그야말로 혹독한 고통을 주는 처형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쓸개 탄 포도주는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마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취로 인해 정신을 잃거나 고통을 잊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셔야 했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27:35-36)

이것은 시편 22장의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겹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나이다”는 예언이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27:37)

당시에는 죄수를 십자가에 매단 후 그의 죄목을 적은 죄패를 붙여두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로마 정부의 위엄을 식민지 백성들에게 나타내보이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그 죄패를 곧바로 십자가에 붙이지 않고 여러 사람들이 보도록 거리로 가지고 다닌 후에야 붙였습니다. 보통 십자가를 진 죄수는 여러 명의 로마 군인들이 그 주변을 사각형으로 둘러싼 채 형장으로 갔는데 군인들 중 계급이 가장 높은 병사가 이 죄패를 들고 앞장서서 갔습니다.

“이 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27:38-39)

머리를 흔드는 것은 비웃음과 조롱, 즉 모든 악의를 드러내는 행동이었습니다.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면서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27:40-43)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뜻으로 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처럼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들은 조롱 가운데 예수님에 대하여 두 가지를 증거했는데, 42절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라는 말과 43절의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라는 말들이 그것입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스스로 자기들을 정죄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겿세마네 동산에서 칼을 빼어 휘둘렀을 때 예수님은 “네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나 자신을 구한다면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참으로 꼭 맞는 말입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못박은 자들을 사용하셔서 옳은 말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러한 일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자주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자를 통해서도 자신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욱하더라”(27:44)

본문에는 십자가에 못박힌 강도들도 함께 욱했다고 했는데, 누가복음에는 그 중의 한 명이 후에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증언합니다.

“제 욱 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 구 시까지 계속하더니”(27:45)

제 욱 시는 정오를 가리키는데,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박히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세 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셨고 다시 세 시간이 지나서 제 구 시, 즉 오후 세 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오에서 오후 세 시까지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결코 일식과 같은 자연적인 현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유월절이요, 유월절은 만월 때이기 때문입니다. 만월 때는 달이 태양의 반대쪽에 있으므로 일식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습니다.

“제 구 시 즘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27:46)

우리는 이 구절이 시편 22편의 서두에 나온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리기 위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22장에 이 모든 것이 예언되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지금 일어나는 일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시편 22:2의 “내 하나님이며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는 말씀은 다가올 어둠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18절에는 예수님의 옷을 제비뽑는 예언이 나옵니다. 또한 15절에는 “내 혀가 잇틀에 붙었나이다”고 말씀하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겪을 극심한 갈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라는 말씀은 정확하게 십자가에 달린 사람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운명하시기 직전에 시편 22:1의 “내 하나님이며 내 하나님이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말씀을 외치심으로써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짐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절규를 들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고뇌를 생각해 됩니다. 예수님이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간청했을 때, 땀이 땅에 떨어져 피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마셔야만 했던 쓴 잔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일체시며 단 한 번도 그분과 떨어져본 적이 없으신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지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분리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분리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영원히 분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절규가 당신의 마음속 깊이 울려오니까? 확신하건대 이와 같이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받은 경험을 맛본 사람은 다시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도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과 우리 대신 받아야 했던 하나님의 진노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운을 가지고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우거늘”(27:48)

그는 예수님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헛소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통증을 가라앉혀 주는 신 포도주를 마시게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여전히 냉소적으로 “가만 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고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27:50)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50에서 예수님이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신 것은 승리의 외침이었습니다. 즉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구속이 완성되었다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이 말씀 후에 예수님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고 말씀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27:51)

바로 그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습니다. 아래부터 위로가 아니고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휘장을 찢으셨음을 나타냅니다. 성소의 휘장은 죄 많은 인간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이제까지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오직 제사장을 통해서만, 그것도 많은 제사를 드린 후 일 년에 한 번 속죄일에만 가능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려면 성소의 휘장을 통해야만 했는데 어떤 기록에 의하면 그 휘장의 두께는 자그마치 45cm나 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성소의 그 무거운 휘장은 인간에게 있어서 ‘통행금지’라는 의미를 상징했었습니다. 즉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의 비참한 모습을 깨우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 휘장이 제거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 향한 열린 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소 휘장이 둘로 찢어진 사건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었음을 선포하신 사건입니다. 우리의 죄가 사해될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들어졌고

이제는 우리가 그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먼저 그리로 우리를 위해 들어가셨기 때문에 가능해졌습니다.

인류 최초의 죄는 형제 살해였습니다. 아니 사실은 이보다 더 거슬러 올라간다면 자살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하셨는데도 아담이 그것을 먹었을 때는 이미 그는 자살 행위를 한 것입니다. 두번째 죄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형제 살해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저지른 죄 가운데서 가장 큰 죄는 하나님 살해였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였습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27:52-53)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일어난 일로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시편 68:18을 인용하여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랫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음부(Hades)가 두 구획으로 나뉘어져 있음을 암시하셨는데, 그 중 하나는 아브라함이 죽은 의인들을 위로하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도 우리처럼 예수님의 희생과 관계 없이는 완전하게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수소와 염소의 피로는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고 오직 잠시 동안 죄를 덮어 둘 뿐으로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완전한 희생 제사가 이루어지기까지 온전한 상태로 들어갈 수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이 이루어짐으로써 온전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좇아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27:54-56)

여자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 주라 분부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돌을 굴러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27:57-61)

여자들은 충실하게 남아 주님을 떠나지 않고 무덤을 마주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날이라 대체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27:62)

예비일 다음날이라는 것은 유월절이자 안식일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대체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말했습니다.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의 충격 속에서 부활에 대해서는 완전히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하거늘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27:64-